

광주세계수영대회 D-150 ... 서울역에 '수리' '달이' 조형물 제막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150일 앞둔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 '수리' '달이' 조형물 제막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대회 성공을 기원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영택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주승용 국회부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용섭 광주시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동찬 광주시의회의장, 박태환 홍보대사,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관련기사 2면 /서울=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과 싸웠던 그날처럼 투쟁” 광주 전남 ‘5·18 망언’ 분노 확산

“한국당 의원 3인방 제명하라”

5·18민주항쟁을 폭동이라 폄하하고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표현한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과 지만원씨에 대해 각계각층의 규탄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18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5·18행사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광주시민사회단체는 1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해당 국회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을 제명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평화적으로 타협하고 싶었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라며 “이제는 전두환·노태우와 싸웠던 분노와 결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성명을 내고 “광주와 민주시민에 대한 정신적 테러이자 역사와 진실을 모독하는 만행”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오월 영령과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 모든 학교에서 5·18 계기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기교육자료 1만5000개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와 전남대 5·18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해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윤리위원회 제소와 재발방지책 제시, 지씨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주장했다.

광복회광주전남지부와 (사)한말호남의 병기념사업회도 규탄에 동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회는 독립투쟁의 역사와 민주항쟁사 등을 왜곡·폄하하는 세력을 처벌하는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분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세력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왜곡 행위에 대해 당차원의 사과와 출당, 의원직 사퇴를 비롯해 국회법 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훼손한 구태 정치인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200만 도민과 전남도원들은 국민을 조롱하고 5·18 정신을 파괴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희 기자 kimyh@kwangju.co.kr

문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임명 거부

이동욱·권태오 “자격미달” “후보 재추천 해달라” 공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원 자격 조건은 법조,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또 차기 후보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자격 조건 미달의 이유로 이들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5·18 단체들이 요구한 임명 거부 요청을 결과적으로 수용하면서,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사위원 임명에 대해 보고 받으면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특조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 추천 사례를 들며 이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5·18 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추천했지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 등으로 논란을 야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임명 거부로 5·18 진상조사위

의 출범이 다시 늦춰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18 망언으로 수세에 몰린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재추천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재추천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5·18 진상조사위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조속한 위원 재추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과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가, 피부 피로
잘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향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가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이리파움, 미트, 아모레퍼시픽 매장, 아모레퍼시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